

21



남 학용 선생

남 학용 (본명 - 남안드레이 지리코  
 피예위치.) 선생은 1913년 5월 24일에  
 원동변강 연해주 이란시에서 빈농인  
 가정에서 탄생하였다.

탄생한 도시 이란에서 초학교와 초중을 마  
 감한 다음 가정경제 형편에 의하여 공부를 더  
 계속 못하고 기차기관고에서 14세 되던 해부터  
 동직로 일하였다. 1928년 복하는 기관차에 따  
 라 다니려 기관사의 조수로 일하시다가 1929  
 년에는 기관사로 승급되어 기차를 몰고 다니었다.  
 1930년 즈음에는 취다 시에 있는 철도 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34년에 마감을 하였다. 남학용 선생은 전문학교를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기 때문에 자바의 칼리구 철도 관리국은 남선생의 앞으로의 해방성을 타산하여 동년에 모스크바 철도연수 전기공업대학에 파견하여 공부하게 되었다. 동 대학은 남선생의 학업과정에 비제제르부르그로 입학하게 되었더니 남선생은 동 대학을 1939년 졸업하였다. 대학을 나온 이후 남선생은 철도성의 파견에 의하여 블라디보스톡 - 시베리 철도 관리국에 도착하여,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책임기사 직무를 거쳐 1943년 부터 1946까지 철도 신호 설비 및 통신 관리국장으로 일하였다. 1946년 초에 소련 공산당 조직부의 파견에 따라 국제공산당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북한에 파견되었다. 남선생은 북한에 도착하여 처음 북한 임시 연변위원회에서 철도 관리국장, 다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 정부가 조직된 다음 교통성 제일부상으로 일하였으며 다음 민간항공 관리국 국장, 1949년 초 부터 조선 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교통운수 총검열국장으로 중앙 정부에서 일하였다.

1950년로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남선생은 1950-1953년 까지 군사 교통운수 총국장에 겸임으로 조종 연습 사령부 군사 교통운수 담당 부사령관의 직무에서 일하였다. 당시 군사 형호는 공장이었다.

북한에서 사임을 하시는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많은 품창들을 수여 받았던바 그중에서 가장 큰 대한 품창으로 국기훈장 1급과 2급, 자양득립훈장



2급은 수여 받았다. 그 외에도 '많은 레다트와 동창  
 장을 수여받았다. 조선의 동족상잔 시기, 아득극난의  
 형편에서 고충을 수 사업은 남선생의 지도하에 비공적 관  
 보장되었다. 기차 조종사들과 작음차 운전사들은 전쟁의  
 열화속에서든 자기 업무는 영웅적으로 보강되었으며, 후방  
 물자들과 군수품들은 제때 제때 운반하여 권역들에 전하였다.

남 학생 선생은 성품이 온정하여, 남과나 등불들과 어울  
 한 능연적 헛소리-잡소리도 하지 않고 다만 실학에는  
 모르는 성미이다. 195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  
 상검을 사업은 1980년으로까지도 남선생에게 함의에서  
 는 어떤 자료가 없어서 운동이 무사히 경과하리라 한  
 남들은 인정하였으나, 사상검을 빠르면 운동이 아니라  
 광풍이 되어 남선생에게 대의에서든 재료를 꾸미  
 가지고 걷고 들기 시작하였다. 그 재료를 벌일것이 아  
 니었다 그들이 죄하고 인정할 기본 종목은 사대주의,  
 -노련을 존경하고 섬기겠다는 것, 노련가족주의- 학생운동  
 와 허가어하고, 가까이 지냈다는 것, 노련관료주의-사  
 업의 지시는 1경험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남선생은 이상의 모든 종목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은  
 모른다 죄목이 아니라 양반의 가장인정답은 돌변  
 하여 양반 생활의 최고의 정직성이라고 인정한다고  
 결론을 하였다. 조선로동당이 이상의 재료를 누를 당  
 구획은 외면하였다고 인정한다면, 누를 노동력으로  
 다시 벌내어 달라고 결론하였다.

남학용 선생은 북한 생활 15년간 자기와 모든 사람  
 생명을 위해서라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  
 서 일하시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승리가 되어 일차리에  
 감격식히 하북에 내려보내려, 당에서는 일류장간의 책  
 벌을 주어 당분기에 등기한다는 것은 접두할 수가 없었다 때  
 문에 1960년 10월에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청  
 원을 묻려 1961년 2월에 조선 모스크바에 귀국하여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의 수속을 밟는다 남선생의 한  
 척 친구들이 살고있는 카자크 공화국 누르 알라타에 오  
 게리었다. 알라타에 도착한후 남선생은 카자크 공  
 화국 내각 국립 과학 연구위원회 운수-통신부 관리국장  
 으로 1965년까지 일하시은 다음 국가 기구 개편으로  
 언하여, 1965년 부터 1970년까지 공화국 기자대동  
 관리국 운수국장으로서 일하시었다

남학용 선생은 1970년 부터 개별적 공화국은 금년  
 금년으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다  
 8/21-1977년에 별세하시었다.

29 октябрия 1999 года.